

초서의 여성 다시읽기: 파블리오 양식과 의복모티프를 중심으로

최 지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12, 13세기 프랑스에서 융성했던 파블리오(Fabliaux) 양식은 보통 8음절 2행 연구(octosyllabic couplet)로 쓰였으며, 호색적인 내용과 표현 때문인지 대개 작가익명인 상태로 전해진다. 그 어원(*fabula, fable*)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내용이 풍자적이며, 상스러운 정도의 난폭하고 외설스러우며 정제되지 않은 해학으로 일관된다. 중세인들의 욕정, 물질적 탐욕, 그리고 복수 등 인간의 보편적 본능을 저변으로 깔면서 중산계층을 성적인 술책이나 외설적인 희롱에 관련하여 웃음거리로 만드는 장르이다. 파블리오 양식은 유럽 최초의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그 사실적이고 과감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Bloch 1-3). 또한 파블리오에 등장하는 여성은 여성혐오주의를 강화하지만 오히려 여성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고양되고 세련된 ‘궁정식 사랑 이야기’에서 숭배 받으나 수동적으로 표현된 귀부인보다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과 그녀들의 욕망표현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양식으로 지적되기도 했다(Power 11). 이러한 파블리오 양식은 기존의 다양한 문학양식을 실험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던 초서에게 다채로운 여성인물 창조를 실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험의 장이었음이 분명하다.

본 논문은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의 파블리오 양식의 이야

기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을 12세기 이후 중세시대 중상주의의 부상을 알리는 중요 모티프 중 하나인 의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¹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중 「선장의 이야기」(*The Shipman's Tale*),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The Miller's Tale*), 「상인의 이야기」(*The Merchant's Tale*), 「장원청지기의 이야기」(*The Reeve's Tale*), 「요리사의 이야기」(*The Cook's Tale*), 「소환리의 이야기」(*The Summoner's Tale*)가 보통 파블리오 양식으로 분류된다(Muscatine 57-67). 언급한 6편의 파블리오는 초서의 파블리오 양식 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그 구성 면에서 여성인물이 능동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적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은 「선장의 이야기」,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 「상인의 이야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파블리오 이야기중에서 여성인물과 의복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상인의 이야기」를 제외시키고, 대신 「바쓰부인의 서문」을 포함시켜서 파블리오의 여성 인물과 의복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바쓰부인의 서문」의 형식은 파블리오 양식은 아니지만 인물유형과 인물 상호간의 특징이 파블리오 양식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고 바쓰부인 자체가 파블리오 여성의 전형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쓰부인의 의복이 제시하는 방식은 그녀의 독특한 성향과 욕구를 표현할 뿐 아니라 당대의 여러 시각과 관점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아울러 초서의 여성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 파블리오 여성의 의복: 교만과 호색

파블리오의 여성들이 ‘궁정식 사랑이야기’보다 현실생활에서의 여성을 투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파블리오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묘사되는 부수적 장치일 뿐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이나 여성의 의복에 대한 묘사가 제한적인 것은 초서의 파블리오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장원청지기의 서문」에서 순례객들이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

¹ 초서의 인용은 Geoffrey Chaucer,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을 따른다. 번역은 이동일, 이동춘,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을 참조.

를 평할 때 “압솔론과 니콜라스의 기이한 행각에 웃음을 터뜨렸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순례객들의 관심이 딱히 여성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원청지기의 이야기」에서 방앗간 주인 심킨의 거만하고 도둑놈 같은 외양묘사가 자세하게 그려지는 반면 그의 아내의 외양묘사는 남편에 비해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 사실 초서는 「총서시」에서 순례객들을 묘사하기 전, 의복묘사를 통해 그 착의자들의 특징을 포착하여 구체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GP 39-41) 의복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순례자들의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의복묘사 또한 소수의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면을 보인다.

그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묘사된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의 엘리슨(Alisoun)이나 바쓰부인의 옷차림은 주목할 만하다. 바쓰부인에 대한 초서의 각별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더욱 의도적이라는 호지스의 지적 또한 타당하며(Hodges 161-162) 이 지적은 엘리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의 여주인공 엘리슨은 아름답고도 색욕 넘치는 여성으로, 이는 파블리오 양식에 등장하는 아내의 전형이다. 특히 초서는 “족제비”(wezele 3234), “제비”(swalwe 3258), “새끼염소와 송아지”(kyde or calf 3260), “망아지”(colt 3263) 와 같은 동물 이미지를 활용하여 활달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엘리슨의 성적인 매력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중세에는 동물로 묘사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동물의 이미지는 7대 죄악의 본성을 표현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Kolve 173). 예컨대, 15세기 회화(繪畵)를 보면 7대 죄악은 각각 동물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그려져 있다. ‘질투’, ‘탐욕’을 나타내는 그림은 남성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호색’의 그림은 아름다운 가운을 입은 여인이 ‘숫염소’를 타고 손가락에 ‘참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Kolve 174-5). 아름다운 옷과 여자와 ‘숫염소’나 ‘참새’, ‘제비’와 같은 동물들은 모두 ‘호색’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초서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기사 이야기」의 에밀리와 엘리슨을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에밀리같은 고귀한 신분의 여인은 백합이나 장미 같은 꽃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파블리오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주로 동물로 묘사되는 것은 그들의 낮은 신분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방앗간 주인이야기」에 나오는 엘리슨에 대한 선명한 외양 묘사는 단연 돋보인다.

부인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게다가
 몸은 족제비처럼 늘씬하고 나긋나긋하였다.
 온통 비단으로 만들어진 줄무늬 허리띠를 하고 있었으며,
 새벽 우유만큼이나 하얀 앞치마는,
 허리 주위로 너울거리도록 잘 퍼졌고 주름 또한 잘 잡혀있었다.
 겉옷은 흰색으로 옷깃의 앞뒤로 돌아가면서
 칠흑같이 검은색 비단실로
 수가 놓아져 있었다.

Fair was this yonge wyf, and therwithal
 As any wezele hir body gent and smal.
 A ceynt she werede, barred al of silk,
 A barmcloth as whit as morne milk
 Upon hir lendes, ful of many a goore.
 Whit was hir smok, and broyden al bifoore
 And eek bihynde, on hir coler aboute,
 Of col-blak sil, withinne and eek withoute. (MIT 3233-40)

엘리슨의 의복은 실크처럼 값비싼 천으로 된 것이지만 색깔은 “칠흑 같은 검은색”(col-blak 3240)과 “우유 같은 흰색”(whit as moren milk 3236)으로 이루어졌다. 바쓰부인의 화려한 의상과 비교해보면, 엘리슨의 의상 색깔은 제한되어 있다. 엘리슨의 무채색 의상은 부르주아 아내가 갖는 지위의 한계를 표현하며, 나아가 늙은 남편에 의해서 새장처럼 갇혀 있는 엘리슨의 상태를 드러낸다(Kolve 163). 엘리슨같이 18세의 어린 아내를 두고 목수라는 직업에다가 하숙생까지 두고 있는 영감은 돈이 많았음에 틀림없다. 그가 실크 옷은 물론이고 바쓰부인과 심킨의 아내가 걸친 진홍색 가운도 엘리슨에게 충분히 사줄 수 있었을 텐데도 사주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자”(held hire narwe in cage 3224)해서이다. 아내가 바람날까봐 노심초사인 늙은 남편이 진홍빛 옷을 사줄 리가 없다. 물론 이후에 엘리슨은 니콜라스와 놀아나고 그와 함께 늙은 남편을 골탕먹이기도 하지만, 엘리슨의 의복은 바쓰부인과는 달리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종속된 엘리슨의 제한적 상황을 보여준다.

엘리슨은 “옷깃 아래 부분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는데 방패의 장식만큼 넓었

다”(A brooch she baar upon hir lowe coler,/ As brood as is the boos of a bokeler 3265-6). 엘리슨이 옷깃 아래에 단 큰 브로치는 자연스럽게 바쓰부인의 둥근 방패 만한 커다란 모자를 연상시킨다. 사실 의복묘사에 있어서 바쓰부인의 의복만큼 독자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은 없다. 바쓰부인의 의복중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10파운드나 되는 모자와 진홍빛 스칼렛 스타킹이다.

바쓰부인의 의복이 드러내는 부유함은 사치스러운 부르주아의 아내인 동시에 ‘옷감제조업자’인 경제인으로서 그녀의 직업에서 기인한다. 바쓰부인이 직업이 있다는 점은 엘리슨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지만 두 여인 모두 부르주아들이 축적한 부를 의복으로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3세기 후반부터 개인적인 부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혜택을 누린 부유한 귀족과 도시의 상류층들은 화려한 의복을 즐기게 되었다(Fiero 44). 부유한 부르주아들도 귀족계급처럼 많은 천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의 돈벌이 능력과 여가를 증명하였다. 특히 영국은 옷감 제조업 분야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를 앞서 나가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축적된 부는 14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 변화는 단지 중세의 의복관습은 물론 이 후 사회구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발달을 의미했다. 땅은 많지만 현금이 없는 봉건귀족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금이 많은 집단, 즉 「총서시」에 등장하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도시 직업 전문가들, 길드 조직원이나 바쓰부인과 같은 기술인과 상인에게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신흥 부유층들은 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만이 누리던 의복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의 위계질서는 더 이상 신분의 위계질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14세기 후반에 봉건제도가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의복으로 표시되던 계급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붕괴되어갔다.

「총서시」에서 길드조직의 아내들이 모두 여왕처럼 옷자락이 긴 가운을 입은 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모방하며 자신들의 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수입과 재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부인들 역시 그들에게 어울릴 만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마님이라 불리지는 것과

교회 행렬에서 앞장서기를 기뻐했으며,

그들의 외투가 여왕처럼 들러지기를 바랐다.

For catel hadde they ynogh and rente,
 And eek hir wyves wolde it wel assente;
 And elles certeyn were they to blame.
 It is ful fair to been ycleped "madame",
 And goon to vigilies al bifore
 And have a mantel roialliche ybore. (GP 373-8)

부유한 부르주아들은 화려한 의복을 아내에게 입힘으로써 자신들이 획득한 부를 과시하고자 하였다(Hunt 236). 도덕적 관점에서 의복 규제법은 물질적 탐욕과 자랑을 금지하고 중세의 질서인 계급을 유지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Fiero 46). 그러나 이 시기의 의복규제법이 내용이 길고 세부적이며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영국의 법적인 소송기록에서 의복 남용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Newton 132). 왕과 여왕이 사용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수입이었다. 도시화와 산업발달의 결과로 부유한 상인 부르주아들은 기꺼이 귀족계급과 경쟁하고자 했고 바쓰부인이 속한 중상층 부르주아의 아내들은 특히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 있었다. 바쓰부인의 화려한 모자는 이러한 부의 재분배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증거이다. 옷감제조업자인 바쓰부인은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여성이다. 중세인들은 "결정적이고, 명확한"(decisive, unequivocal) 색깔을 사랑했다(Eco 44-45). 비록 밝은 색깔의 옷은 상류계층에게만 허용되었고 농민계층은 둔탁한 회색이나 황갈색 옷을 입어야 했을 지라도 말이다(Brewer 104). 언급한 바쓰부인의 이 진홍빛 색깔도 귀족계급이 누릴 수 있는 상류층의 합법적인 독점권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쓰부인의 멋진 스타킹이 구체화된 이유는 붉은색 스칼렛 천이 바쓰부인의 경제적인 부를 증명해준다면 진홍빛 색깔은 타인의 시선을 어느 누구보다 갈망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색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바쓰부인뿐 아니라 「장원청치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식하고 돈 많은 방앗간 주인 심킨(Symkyn)과 교구목사의 사생아 출신인 그의 아내가 진홍빛 가운을 입었다는 사실은 진홍빛 가운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또한 심킨의 아내가 입을 진홍빛 가운은 파블리오의 아내들이 전형적으로 즐기게 되는 성적인 쾌락을 연상시키며 바쓰부인의 의복이 제시하는 성적인 암시와 함께한다.²

바쓰부인의 복장 묘사에서 교만과 호색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요일 복장의 모자와 진홍빛 스카렛 스타킹과 부드러운 새 신발은 무엇보다도 의복과 새로운 패션에 대한 바쓰부인의 남다른 관심이기도 하다(Reiss 31). 도덕가나 설교자들의 눈에 바쓰부인의 의복은 부의 과시요 교만의 상징이지만 바쓰부인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에서만 보더라도 『기사이야기』의 에밀리나 『방앗간 주인 이야기』의 엘리슨은 바쓰부인과 같은 중심적인 묘사와 역할은 부여받고 있지 않다. 중세 문학에서 여성들이 종종 ‘재산’으로 간주되고 부속품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빈번했던 경우에 반해 바쓰부인은 다른 남성 순례객들을 능가할 만한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바쓰부인의 의복은 시대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향과 욕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바쓰부인은 십 파운드나 되는 모자와 진홍빛 스타킹 그리고 새 신발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성적인 매력을 공격적으로 제시한다. 바쓰부인의 의복에서 표출되는 이같은 과도함과 공격적인 당당함은 앞서 『방앗간주인의 이야기』의 엘리슨의 의복과의 대비에서도 드러나듯이 ‘옷감제조업자’라는 직업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의복이 전하는 성과 돈의 전략

파블리오 여성들은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경멸하고 간음, 탐욕, 사기를 행하면서 성과 돈을 쫓는 면에서는 바쓰부인과 유사하지만, 그들의 행동방식이 보통 전형화되어 있어서 각 인물을 개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장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파블리오 작품보다 바쓰부인과 긴밀한 관계가

² 우선 바쓰부인이 쓴 것과 같은 화려한 모자는 남편에게 성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부담을 의미했다. 수녀, 과부, 노동계층이 사용하던 소박한 베일이 상류층 여인들에 의해서 점점 화려하게 장식되면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헨닌(Hennin)이라고 불리는 끝이 뾰족한 모자가 중세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식인데 이것의 변형인 끝이 두 개인 뿔처럼 된 모자는 염소와 악마의 뿔을 연상시키며 오만과 투쟁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뿔처럼 된 모자를 쓴 여성은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결국 남편을 오쟁이진 남편으로 만든다(Wenzel 705). 이러한 사실은 관련된 어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귀부인들의 ‘뿔처럼 된 모자’(horned headdresses)에 대한 풍자시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cointise’는 바쓰부인의 모자가 내포하는 성적인 암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있는데, 이는 초서가 「선장의 이야기」를 쓸 때 바쓰부인을 이미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때문이다(Riverside Chaucer 15-16). 두 작품 사이의 공통점은 이야기에서 흘러넘치는 상업주의 정신, 두 여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옷과 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능력에 있다(Martin 90). 이러한 공통점은 「선장의 이야기」와 바쓰부인의 연관성을 넘어, 「선장의 이야기」에 단편적으로 드러난 의복과 돈 그리고 성에 대한 메시지가 바쓰부인의 의복이 전하는 성과 돈의 전략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장치임을 말해준다.

「선장의 이야기」는 ‘성(sex)과 ‘속임수’(trickery)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파블리오다. 다른 파블리오 양식의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 「장원청치기의 이야기」처럼 등장하는 아내들이 다른 남성과 놀아나고 남편에게는 속임수를 행한다는 등의 비슷한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으나, 시작 부분에서 아내의 의복 비용을 언급하는 점과 또한 결말부분이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판과 보카치오의 『데카메론』(Decameron)과는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장의 이야기」에서 프랑스판 원전에 등장하는 군인이 수도승으로 바뀌었으며, 『데카메론』의 경우 아내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시 건네주는 것으로 나름 대가를 치루며 결론을 맺는다면 초서는 아내가 저지른 간음도 발각되지 않고 돈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선장의 이야기」는 아내의 옷값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상인의 아내가 옷을 사게 된 명분은 “그의 명예를 위해 옷을 입고”(For his honour, myself for to arraye 179)에서 드러나듯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다. “단지 그의 위신을 위해 옷을 입고”(12-13), “그의 명예를 위해서 옷을 입고”(179) “당신의 명예를 위해 모두 옷값으로 썼어요”(420-421)라는 반복되는 문장은 상인의 아내가 입은 옷이 남편의 명예와 동등한 교환가치라는 당대의 사고를 드러낸다(Patterson 350). 이는 상인이 이러한 아내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의복에 대한 강조는 ‘array’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암시를 띠게 된다(Colette 177-8).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한 이유는 ‘현숙한 아내’가 가정을 지혜롭게 경영하여 남편을 ‘비용’(dispenche)면에서 이롭게하는 반면, 상인의 아내는 남편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명예를 나타내는 아내의 의복이 여기서는 성과 돈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된다. ‘array’는 434행에 걸쳐 6번 사용된다. 바쓰부인을 연상시키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남편의 “명

예”를 언급하면서도 비용과 관련된 어휘(*dispenche, paye, cost*) 들을 함께 말한다 (ST 5-18). 비용에 대한 이러한 반복된 강조에서 드러나듯이, 상인의 아내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의 약점은 인색함이다. 아내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남편의 의무로 생각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인색함은 참기 힘든 문제였던 것이다.

불쌍한 남편은 돈을 지불해야하며
우리를 옷 입혀주고, 우리를 치장해 주어야한다.
자신의 명예를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죠.

The sely housbonde, algate he moote **paye**,
He moot us clothe, and he moot us **arraye**,
Al for his owene worshipe richely, (ST 11-14)

전형적인 파블리오는 간음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음모가 밝혀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초서의 파블리오는 누구의 불행한 결말이 아닌 행복한 혹은 모호한 결말을 맞게 된다. ‘사악한 아내’의 특징은 ‘자기만족’과 ‘자기몰두’이다 (Biscoglio 96). 예컨대 「선장의 이야기」의 상인의 아내가 재정적 이득과 늘어난 옷장을 추구한다면 「상인의 이야기」의 메이(May)의 목표는 남편의 수습기사이자 연인인 다미안(Damian)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악한 아내의 특징은 곧 바쓰부인의 특징이며 초서의 파블리오 여성인물들의 특징이다.

3. 의복을 통한 욕망과 주체성의 발현

“화려한 의복”은 간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값진 옷으로 꾸미는 것은 곧 정절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Owst 337-339). 여성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발정난 고양이처럼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집 저 집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말은 설교단에서 여성들의 의복과 돌아다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했던 진부한 내용 중 하나이다. 설교의 한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집에 있지 않고 다닌다고 불평하는 남자에게 그의 이웃은 꼬리와 귀를 자르고 털을 태우면 집에서 나가지 않

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와 같이 설교자는 “여성들이 어리석다면, 그들의 긴 옷 자락을 자르고, 머리를 단장하지 못하게 하고 옷 색깔을 탈색시켜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교한다(Owst 389). 여자가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하는 것은 “방랑”과 연결되며 성적으로 문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대목은 또한 「방앗간주인이야기」의 엘리슨의 의상을 생각나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슨의 의상이 흑과 백의 색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그녀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 감시하려는 목수 영감의 억압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마누라가 성적으로 문란할까봐 두려워하는 늙고 돈 많은 남편과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젊은 아내의 계속되는 다툼은 바로 바쓰부인이 늙은 남편들에게 해대는 잔소리에서도 구체화된다. 반복되는 이러한 잔소리와 다툼에 늙은 남편들은 두 손을 들고, 바쓰부인은 원하는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파블리오의 아내들의 복장이 화려하게 묘사되는 곳마다, 번쩍거리는 외모와 성적인 죄 사이에 암묵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우월한 힘은 화려한 의복으로 증명된다. 의복비를 남편의 돈으로 지불하면서도 남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여성은 의복으로 자신의 권력과 개성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Hallissy 134) 이러한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바쓰부인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맘대로 돌아다닌다. 바쓰부인의 주도권과 개성에 대한 욕구, 무엇보다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맘대로 돌아다니고자 하는 욕구는 바쓰부인의 확고한 성향이고 이러한 확고한 성향은 의복의 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나의 최고로 좋은 옷인 길고 화려한 스칼렛 가운을 입고 갔지요.
 유충이나, 좀이나, 벌레도 내 옷을
 조금도 뜯어먹을 수 없었지요. 그 이유를 말해 줄까요?
 내가 언제나 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지요.

And wered upon my gaye scarlet gytes.
 These wormes, ne these motthes, ne these mytes,
 Upon my peril, frete hem never a deel;
 And wostow why? For they were used weel. (WBP 559-562)

사순절 직전 축제 기간에 바쓰부인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다른 애인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녀는 멋진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또 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려한 스칼렛(*scarlet, escarlet*) 가운을 입고 돌아다닌다. 여기에서 스칼렛은 보통 생각되는 것처럼 단순히 '색'을 치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세하고 비싼 모직 천'이다. 바쓰부인의 화려한 스칼렛 가운이 붉은 색이라는 사실에 많은 비평가들이 동의하고 있다(Hodges 2000: 175). 「총서시」에서 언급된 진홍빛 스타킹과 더불어 바쓰부인의 스칼렛 가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다른 사랑의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그녀의 욕망의 발로이며, 이를 담은 의상전략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의 상품가치가 떨어진 것을 인정한 바쓰부인은 이제 상품가치를 만회해 줄 다른 전략과 도구를 찾는다. 젊은 육체라는 밀가루가 사라진 순간 젊은 미모를 포장해서 남성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밀기울은 돈과 화려한 의복이 된다.

그러므로 바쓰부인의 길고 화려한 스칼렛 가운은 유충도 좀도 벌레도 먹을 수 없었다. 바쓰부인이 계속 입고 다니기 때문이다. 바쓰부인의 늙어가는 육체를 감싸고 있는 화려한 스칼렛 가운은 젊은 남성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성적인 강렬함과 부를 함축하고 있는 의복이다. 바쓰부인은 결코 그 옷을 벗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에 담긴 의미는 성경의 권위와 연결되어 바쓰부인의 성향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킨다. 원래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의복이 좀(*moth*)때문에 썩게 마련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은 좀과 녹이 먹으니 좀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는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Matthew 6: 19-20). 이 땅의 모든 보물은 좀과 녹이 먹고 결국은 썩게 되는데 특히 중세의복은 좀에 매우 취약했다. 중세시대 가정은 좀과의 끝없는 전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과 의복의 관계에 대한 바쓰부인의 지적은 중세인들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을 것이다(Cooper 146). 이 대목은 바쓰부인이 종종 범하는 잘못된 성경 인용의 예를 드러내기 위해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오히려 그녀의 욕망의 정체를 그대로 표출해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바쓰부인은 대부분의 중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인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욕망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이다. 그녀는 교부들의 권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라 현실이고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다. 스칼렛 가운에 대한 이와 같은 바쓰부인의 해석은 이렇듯

교부들의 해석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4. 맺음말

바쓰부인에게 “결혼의 행위와 열매”(In the actes and in fruyt of mariage WBP 114)의 의미는 당대가 제시한 결혼의 열매인 자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결혼의 행위와 열매는 성적인 기쁨과 경제적 이득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주도권이다. 바쓰부인이 5번의 결혼을 통해서 획득한 부와 개성과 욕망은 그녀가 착의한 길고 화려한 붉은색 스칼렛 가운을 통해 증명되고 설명된다. 바쓰부인은 자신의 성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 옷값을 지불한다면 자신의 성이 상품가치를 잃었을 때는 부로 획득한 화려한 의복을 수단으로 젊은 남편과 성적쾌락을 얻고자 한다. 바쓰부인을 통해 초서의 파블리오 여성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부수적 요소가 아닌 능동적, 주체적 인물로 옷입고자한다. 바쓰부인은 자신의 다섯 남편 뿐 아니라 여성혐오주의 작가들, 교부들에게는 그들의 악몽을 육화한 존재이지만 모든 파블리오 여성에게는 그들의 로망이요 총합이다.

주제어 | 여성, 파블리오, 의복, 바쓰부인, 성

인용문헌

-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이동일, 이동춘 공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Biscoglio, Frances Minetti. *The Canterbury Tales and the Tradition of the Valiant Woman of Proverbs 31: 10-31*.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P, 1993.
- Bloch, Howard. *The Scandal of the Fabliaux*. Chicago: Chicago UP, 1986.
- Brewer, Derek. *Chaucer in his Time*. London: Longman, 1973.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 Larry D. Benson. Boston:

- Houghton Mifflin, 1987.
- Cooper, Helen. *The Canterbury Tales*. Oxford: Oxford UP, 1996.
- Collette, P. Carolyn. *Species, Phantasms, and Images: Vision and Medieval Psychology in the Canterbury Tales*.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4.
- Eco, Umberto. *Art and Beauty in the Middle Ages*. New Haven: Yale UP, 1986.
- Fiero, Gloria K. and Wenday Pfeffer, eds. and trans. *Three Medieval Views of Women*. New Haven: Yale UP, 1989.
- Hallissy, Margaret. *Clean Maids, True Wives, Steadfast Widows*. Westport: Greenwood Press, 1993.
- Hodges, Laura F. *Chaucer and Clothing: Clerical and Academic Costume in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Rochester: Brewer, 2005.
- . *Chaucer and Costume: the Secular Pilgrims in the General Prologue*. Rochester: Brewer, 2000.
- Kolve, V. A. *Chaucer and the Imagery of Narrative: The First Five Canterbury Tales*. Stanford: Stanford UP, 1984.
- Lucas, Angela M. *Women in the Middle Ages*. Sussex: Harvester Press, 1983.
- Martin, Priscilla. *Chaucer's Women: Nuns, Wives, and Amazons*. 2nd Rev. ed.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1996.
- Muscatine, Charles.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Berkeley: UP of California, 1957.
- Newton, Stella Mary. *Fashion in the Age of the Black Prince: A Study of the Years 1340-1365*. Suffolk: Boydell Press, 1980.
- Owst, G. R. *Literature and Pulpit in Medieval England*. Oxford: Blackwell, 1966.
- Patterson, Lee. *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 London: Routledge, 1991.
- Power, Eileen. *Medieval Women*. Ed. M. M. Postan. Cambridge: Cambridge UP, 1975.
- Reiss, Edmund. "Chaucer's Thematic Particulars." *Signs and Symbols in Chaucer's Poetry*. Ed. John P. Hermann and John Burke, Jr. Tuscaloosa: U of Alabama P, 1981. 27-42.
- Wenzel, Siegfried. *Fasciculus Morum: A Fourteenth-century Preacher's Handbook*.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89.
-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5.

ABSTRACT

Re-reading Chaucer's Women: Focusing on Fabliau and Clothing

Jiyeon Choi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ucer's women in *The Canterbury Tales*, focusing on fabliau(genre) and clothing. Fabliaux are a kind of a genre which is characterized by medieval comic tales with sexual and trickery themes. They were a kind of bourgeois literature, showing an accurate portrayal of life in the Middle Ages. Chaucer experiments various kinds of writing styles and finds fabliaux as a suitable tool for him to describe women in the time of change. His Miller's Tale and Reeve's Tale are considered best in English fabliaux. Chaucer's time advanced into the capitalist system. Clothing is a major motif to reflect the economic growth at that time. Medieval people wanted better clothing. Women also desired clothing. These aspects are partly revealed in fabliaux. However, fabliau women cannot be said to transcribe the reality of social life in the Middle Ages. Rather, they are not described as individuals but stereotyped.

Chaucer describes in detail Alisoun's clothing in the Miller's Tale. The descriptions of Alisoun's appearance and clothing bring up the image of animals like *wezele, swalwe, kyde or calf, colt* and so on. Animal images in Chaucer's time are more negative than thought these days; however, they show strikingly vivid and lecherous women, compared to courtly love styled women's noble but still passive image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iced that Alisoun's clothing isn't described in various colors but only black or white. These limited colors represent Alisoun's restricted situation by her husband. Chaucer's fabliau women somewhat developed but showed restricted aspects.

Wife of Bath's boisterous clothing and headdress show her pride and extravagance, which are harshly criticized during that time because sumptuous clothes revealed one's inner sins. She has the purchasing power to reveal her wealth and profession. She doesn't take off her red scarlet gowns, showing her sexual desire and wealth. Although age has stripped her of her beauty and youth, she is showing off her wealth by wearing her sumptuous clothing. Her clothing revealed her desire and independence. Fabliau women become independent and active through Wife of Bath. Women's desire and independent will are

materialized by means of Wife of Bath's clothing.

Key Words | Women, Fabliau, Clothing, Wife of Bath, Sexuality

